# 친환경 포장재 생산 일괄시스템 구축

## 폐자원 재활용 청정사업

우리 나라도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환경을 생각한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신소재 개발이거나 기존 제품의 약간 변경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 폐지를 재활용해 제2의 생산품으로 태어나고 있는 펄프몰드가 주목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시류만을 쫓아가다 실패한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대명제 아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일관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업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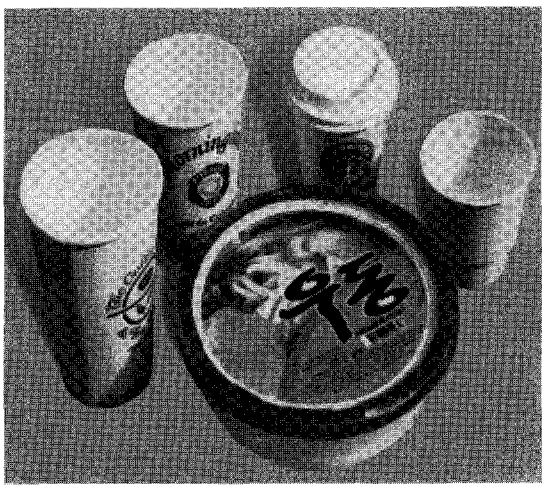
경남 김해에 소재한 피엠피리사이텍(주)(대표이사 신승운)은 지난해 생산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현재 가동에 들어가 산업용 완충재, 1회용 식품용기, 독자 브랜드 제품, OEM방식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산업용 완충재로는 휴대폰 포장재, 전자제품 포장재, 반도체 트레이, 완구 포장용기, 기계부품 포장재, 화장품 포장재, 자동차 부품 포장재, 신발 내부 보강재를 비롯하여 일회용 식품용기로는 접시, 컵, 도시락 용기, 페스트푸드 용기, 청과물용기, 농·수산물 용기, 우동·컵라면 용기, 계란팩, 제과포장용기, 주류 포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피엠피리사이텍은 제지를 알아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펄프 제지공학을 전공하고 제지 관련 업계에서 수년간 몸담아 온 손상돈 부사장을 영입, 제품의 개발 및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엠피리사이텍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대체품으로, 폐지를 재사용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동진기계에서 펄프몰드 설비를 제작, 서포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과감한 투자로 이어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손상돈 부사장은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내·외적으로



▲ 피엠피리사이텍에서 생산하는 1회용 식품용기

▲ 피엠피리사이텍(주) 본사와 손상돈 부사장

강화되어 가는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EPS, PE, PVC, PS 등 기존 합성수지로 만든 포장 완충재와 일회용 식품용기를 대체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환경친화적 1회용 포장재 및 식기들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에 착안,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업용, 농축산용 완충재는 골판지, 신문 등의 폐지를 이용하며 1회용 식기용기는 버진펄프(목재, 대나무, 갈대 등)를 원료로 생산하고 있다.

피엠피리사이텍은 또 21세기 전세계가 지구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구미 선진국에서 수출품 포장재를 환경 친화적 소재로 의무화하고, 국내에서도 환경보호 측면에서 다이옥신 발생과 환경호르몬의 문제가 대두되어 일회용품과 합성수지 용기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부응, PMP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유망사업이란 판단에서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피엠피리사이텍은 이 사업이 시류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대국적 차원에서 시작한 것임을 강조하고 환경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편협하였기 때문에 발전이 늦어지고 있어 아쉽다는 점도 피력했다.

피엠피리사이텍은 또한 동진기계가 있어 생산성이 높은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신광섭 동진기계 사장은 "기존 업체들이 개개인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과 협조가 필요하며 업계 발전을 위해 공동이익을 창출해 내는 협회와 같은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기존 제품에 대한 대체 능력이 이 적었고 고객이 만족할 만한 아이템 개발이 부진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프랜차이즈화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비췄다.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나선 피엠피리사이텍의 새로운 도전이 업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ko

〈鎭〉